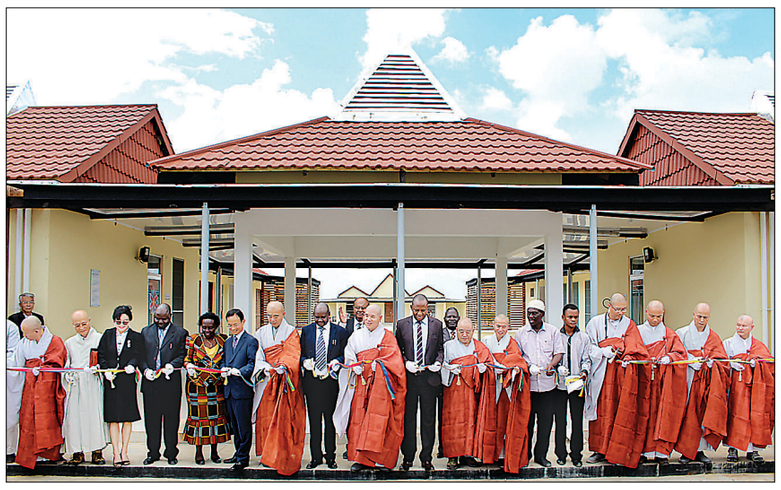
자비로 일군 보리가람대학, 꽃을 피우다

(재)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학교 개교

2013년 9월 기공 후 결실
총 43억4400만원 기금 모여
4만평에 6개 교실 등 갖춰
9월 말부터 60명 학생 수업
"탄자니아 희망의 빛 되길"





보리가람대학 개교식에서 스님들과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은 불자들이 모연한 43억여 원의 기금이 투입됐다.

조계종과 (재)아름다운동행의 숙원 사업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9월 5일(현지시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감보니 무와송가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2013년 9월 첫 삽을 뜬 후 3년 만의 결실이자, 한국 불교계서 최초로 아프리카 대지에 펼친 교육 불사다.

특히 보리가람대학이 기공된 후부터 준공까지 전국 사찰서 스님들 및 신도들의 후원이 줄이어 총 43억4400만원의 기금을 마련(8월 30일 기준),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개교를 성사시켰단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현지서 송금영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 올레 나샤 탄자니아 농림부 차관, 폴 마콘다 다르에스살람 주지사 등이 함께해 보리가람대학의 개교를 축하했다.

이사장 자승 스님은 "'보리'는 부처님의 지혜이며,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말이다. 즉 참된 깨달음,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도량이란 의미"라며 "이러한 '보리가람'서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희망을 한껏 만들어 가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민들에게 밝은 날을 열어줄 것"이라 격려했다.

올레 나샤 농림부 차관은 "대한민국 조계종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학교를 세워줘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 농업 전문 인재 육성이 절실한 탄자니아서 정부조차 해결하지 못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전문학교를 세워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송금영 대사는 "보리가람대학이 들어섬으로써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전기와 상수도 시설이 들어왔다"며 "보리가람이 탄자니아에 새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곳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이날 보리가람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비나눔도 펼쳐졌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이 1만 달러, 종책모임 화엄회가 6,000달러, 법화회가 5,000달러, 영축문화재단이 5,000달러를 전달해 총 2만6000달러(한화 약 2,876만원) 기금이 모연됐다.

한편 보리가람대학은 총 4만여 평 부지에 교실 6개와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강당, 화장실, 주방 및 식당, 학교정원 등을 보유한다. 특히 전교생 기숙생활을 위한 남녀 기숙사 각 1동과 교사 관사를 비롯해 대규모 실습공간으로 농업실습장과 가축실습장을 갖췄다.

탄자니아의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60명 학생이 본격 수업에 들어가며, 3년 간 원예 등 교육을 받으며 전문 학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입학비와 수업료는 전액 무료다.

이와 관련 아름다운동행 측은 "'전교생 기숙사 및 장학금 전액 지원'이란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원예 판매 및 수출을 통한 수익을 재정에 충당할 예정"이라며 "현재 아름다운동행이 전반적인 재정 및 운영을 맡고 있지만 추후 상황을 고려해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종립대학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오대산 생명문화 월정사서 느껴요

제13회 오대산문화축전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암자와 성보박물관, 한강시원지체험관 일대에서 '오대만월 세상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제13회 오대산문화축전을 개최한다.

10월 5일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열리는 전국불교합창제에 이어 시작되는 제13회 오대산문화축전은 생명 · 명상 · 치유의 땅인 오대산의 자연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오대산문화축전이 한국불교문화의 시원지인 오대(五臺)의 역사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과거를 모티브로 했다면 올해는 생태와 환경, 과학과 예술, 물질과 정신 등의 접목이 주제다. 축전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보는 '생명과 치유를 위한 2016 월정사국제컨퍼런스'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뇌 과학과 명상'에 관련된 강연과 '장동수 작가 특별전' 등이 진행된다. 또 산사음악회는 총 네 번에 걸쳐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월정사, 상원사, 영감사에서 열린다. 특히 세 번째 음악회는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소외받는 계층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청소년 문학행사로는 '작가와 함께 걷는 천년숲길'이 '오대산의 책 읽는 밤'과 연계하여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관내 초중고 및 스노우 오케스트라단의 공연과 남대지장암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기획 인형극 '다람쥐제사'가 공연된다.

개막일 저녁에는 한 해의 무사안녕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였던 월정사탑돌이가 봉행되며, 13일 목요일에는 우통수 들차회를 통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서대수정암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축전 마지막 날에는 평창군지역민 노래자랑이 월정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월정사 측은 "오대산문화축전에서 뜨거웠던 여름 내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033)332-691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상품 대상 에코보틀 '풍경소리'

이정현 · 이현익 씨, 풍경과 차문화 접목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이정현 · 이현익 씨의 '풍경소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9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작인 '풍경소리'는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친환경물병이다. 사찰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을 모티브로 예부터 내려오던 불교의 차문화 확산을 기원하며 현대생활과 접목했다는 평을 받았다. 친환경 소재 실리콘으로 제작된 풍경모양의 차 거름망과 둥그스름한 물병이 전각에 매달린 풍경을 연상케 한다.



대상에 선정된 이정현 · 이현익 씨의 '풍경소리'.

아울러 우수상을 수상한 목욕용품세트 '담도(淡道)'는 공모전 최초 외국인 수상작이다. 벨기에인 배예룬 씨는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자연을 생각하고, 소박한 식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사찰음식 정신에서 영감을 얻었다. 문화사업단 측은 "휴대용기는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여행 등 다양한 일상생활서 일회용 물품 낭비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서울시장상, 한국디자인진흥원상,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상,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 등 특별상 4작품과 장려상 3작품, 특성 6작품, 입선 20작품 등 총 36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는 9월 28일~10월 7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10월 8~22일(동대문디자인플라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세계적 건축가들, '禪' 건축을 말하다

전국선원수좌회, 10일 국제 선 건축 세미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禪)사상에 입각한 건축 개념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선원수좌문화복지회는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 선 건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토마스 한라한 뉴욕 프랫대학 건축학과 교수, 영국의 건축가 알란 파워, 일본의 미나미 야스히로 고쿠시칸 대학 건축학과 교수, 스즈키 토모히로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한국의 김개천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가 주요 발제자로 참여했다.

세미나는 문경에 건립되는 국제선센터의 설계를 위한 것으로 발제자들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선 건축 언어를 정립하고 이 같은 선 건축 언어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대중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발제에서 한라한 교수는 선건축의 창조 의미와 자연광과 명상, 자연과 조화를 위한 재료 선정 등을 설명했다. 알란 파워는 "한국의 선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물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공간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연과의 융합과 이상적 정원을 만들기 위한 자연의 재창조 등을 논의했다.

韓 · 美 · 日 등 건축가 5명 발제
각각 禪 건축 개념 설명 진행
문경선센터 설계자 지명 예정

일본의 미나미 야스히로 교수는 종교적 공간이 '정신과 대면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래 전부터 대표적인 기도와 명상, 대면의 건축이 무엇인지를 조명했다.

오래 전부터 불교 사상을 기반한 건축을 해오고 있는 김개천 교수는 "선 건축은 예술 안에서 무한한 정신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며 "어떤 의도로부터 자유롭고 삶과 피안의 모습도 함께 획득한 숭고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경세계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 의정 스님은 기조 발제를 통해 "선의 정신을 명상마을의 건축물과 조경 및 전체 환경에 접목 · 융합시키는 것이 곧 선 건축"이라며 "세계명상마을은 수행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수행 분위기에 젖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다. 이는 낯선 시도지만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문경국제선센터를 한국불교계에서는 최초로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복지회 측은 "세미나 결과에 따라 향후 문경국제선센터의 조성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서 "이번에 초청한 선 건축 전문가들을 지명해 국제현상설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JINGAK WFB 7028 SEOUL KOREA
2016 September 26th – 30th

제28차 WFB 서울총회
The 28th General Conference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9월 26일 - 9월 30일
www.28wfb.org

주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Buddhism in Daily Life, Daily Life of Buddhists)

제 19차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WFBY)
The 19th General Conference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제10차 세계불교대학 회의(WBU)
The 10th Meeting of the World Buddhist University



개회식 Opening Ceremony
27일 (화)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

학술포럼 Academic Forum
주제: 현세정화와 밀엄정토
29일 (목) 오전 9시

폐회식 Closing Ceremony
29일 (목) 오전 11시

주최 대한불교진각종, WFB 세계본부
주관 WFB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 위덕대학교 / 밀교신문